

현대 한국 천주교의 종교적 특성에 관한 고찰

조현범

한국교회사연구소 책임연구원, 종교학 전공
hbthomas@paran.com

- I. 문제 설정
- II. 연구 자료에 대한 검토
- III. 교리적 특성
- IV. 의례적 특성
- V. 교단조직의 특성
- VI. 남은 이야기

I. 문제 설정

2009년에는 한국 현대사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들 여럿이 차례로 별세하였다. 그 가운데 첫 자리에 오른 부음(訃音)은 2009년 2월 16일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선종(善終) 소식이었다. 근자에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조문 행렬과 애뜻한 추모 열기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한국 천주교와 김수환 추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혹자는 당시에 벌어지던 국가적인 추모 분위기에 놀라면서, 이런 현상이 개종 열풍으로 이어진다면 천주교로서는 또 한 번 대규모 교세 확장을 이루는 계기를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추측성 진단을 내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과연 그러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따져 보아야 할 문제겠지만, 워낙 기복이 심한 사회적 흐름을 겪고 있는지라 예측대로 될지는 미지수라고 하겠다.

작은간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은 현대 한국 천주교의 역사에서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조종 소리에 해당한다. 완전히 끝났다는 말은 그 이전에 이미 끝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즉 1922년 5월 8일 대구에서 출생한 김수환 마산교구장이 46세의 젊은 나이였던 1968년 4월 9일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되고, 같은 해 5월 29일 대구교로 서임되면서 서울대교구장에 착좌한 것을 기점으로 한 시대가 시작되었고, 또 30년 뒤였던 1998년 5월 22일 그가 서울대교구장을 사임함으로써 그 시대가 막을 내리기 시작하였다는 말이다. 여기서 특정 개인의 연대기적 생애를 시대라는 용어로 거창하게 표현한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영향을 받은 한국 천주교가 크게 변화하였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김수환 추기경이 등장하기 이전 시대의 한국 천주교는 제도 교회의 운영이나 신학적 지향, 신자들의 신앙생활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지금과는 현격한 차이를 지니고 있었으며, 지금의 모습은 대부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천주교의 앞날은 다시 불투명해 가지거리 제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의 시대에 교회 안으로 활력을 불어 넣어주었던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이 쇠퇴하고 있으며, 급격한 교세 팽창에 따른 부작용들이 교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가난한 교회에서 도회지 중산층이 주축을 이룬

부유한 중산층 교회로 변모하면서 양적인 성장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풍조가 만연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2005년 4월 18일 신앙교리성장관 라칭거 추기경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으로 선출되면서 세계 천주교가 시대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는 일보다, 먼저 정통 신앙을 강화함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더 많은 열의를 가지고 있다. 이것 역시 앞으로 한국 천주교의 침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에서 나열한 시대적 조건을 감안하여 현재적인 시점에서 한국 천주교가 걸어온 궤적들 속에서 형성된 한국 천주교의 특성들을 추출하여 그 의미를 따져보는 작업은 향후 한국 천주교의 앞날을 짐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여기서는 한국 천주교의 종교내적 특성들을 살펴보는 일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실 잘못된 이해나 왜곡된 지식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가령 앞서 언급한 김수환 추기경과 관련지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많은 한국 사람들은 추기경이라는 지위를 국가로 따진다면 대통령에 해당하는 것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선종 당시의 김수환 추기경이 한국 천주교의 최고 수장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천주교 교계제도의 구조로 볼 때에 추기경은 교황청의 주요 업무를 관장하거나 교황 선출과 관련한 권한을 지닌 존재로 일종의 명예직이다. 이런 것을 보면 천주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들 생각하지만, 실상 그 내적 논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오해하는 부분들도 적지 않은 듯하다. 이것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에도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의 종교적 특성에 관해서는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하에서 천주교의 종교적 특성을 소개할 때에 개신교나 정교회와의 차이 때문에 일반인들이 천주교에 관해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을 포함시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러면 한국 천주교의 종교적 특성을 고찰하기에 앞서서, 현재 한국 천주교의 교세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자. 2009년 현재 한국 천주교의 교구는 모두 19개이다. 군종교구를 제외한 18개의 교구는 서울, 대구, 광주 3개 관구로 편제되어 있다. 먼저 서울 관구에는 서울대학교,

수원교구, 인천교구, 대전교구, 춘천교구, 원주교구, 의정부교구가 소속되어 있다. 대구 관구에는 대구대교구, 부산교구, 마산교구, 안동교구, 청주교구가 속한다. 그리고 광주 관구에는 광주대교구, 전주교구, 제주교구 등이 있다. 한편 한국 천주교의 주교들이 서리 직함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통치하지 못하는 3개의 교구가 있는데, 바로 서울대교구장이 서리 역할을 하고 있는 평양교구, 춘천교구장이 서리 역할을 하는 함흥교구, 그리고 왜관 성 베네딕도 수도원의 총아빠스가 서리 역할을 하는 덕원 사지 수도원구(과거의 면속구와 유사한 교구 형태)가 그것이다. 이들은 북한 지역에 분포한 교구들로서 이른바 침묵의 교회들로 불리고 있다.

2009년 5월 30일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발행한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08>에 따르면,¹⁾ 2008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천주교의 전체 신자는 5백만 4,115명으로, 총인구 대비 9.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주교 성직자는 모두 4,204명이다. 그 중에서 교구 소속 사제는 3,477명이고, 교구 사제 외 선교회사 수도회 사제는 726명이다. 추기경과 대주교, 주교는 모두 31명으로 집계되었다.²⁾ 성직자 가운데 한국인 사제는 4,026명이다. 전국의 성당은 모두 1,543개이며, 공소는 1,037개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 수도단체와 수도자의 수를 살펴보면, 남자 수도자는 수련자, 유기서원자, 종신서원자, 외국인을 합쳐서 1,445명이고, 여자 수도자는 1만 401명이다.

이처럼 한국 천주교는 신자수가 최근 20년 사이에 두 배 가량 늘어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위기의 징후들도 나타나고 있다. 2008년도 주일미사 참석자의 수가 신자 총수의 24.0%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고해성사를 보는 신자들의 연인원이 1988년에 439만여 명에서 2008년에 434만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신자 총수는 2배로 늘어났는데, 전통적으로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하는 고해성사자의 연인원이 오히려 줄었다는 것은 그 동안 교세의 외적인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그들의 종교적 열성을 제고하는 일은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1) 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1300&bid=13004155 (2009년 10월 30일 오후 4시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결과임).

2) 2009년 11월 현재 한국 천주교의 추기경, 대주교 및 주교는 모두 30명이다.

II. 연구 자료에 대한 검토

이 글은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 가운데 하나인 천주교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 천주교의 종교적 특성을 논할 때에 로마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확정한 교리와 의례, 조직체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약간 특수한 경우로서 한국 천주교의 상황과 관련한 사항들을 부가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먼저 천주교가 지니고 있는 교리적 특성, 의례적 특성 그리고 조직적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사용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삼는 것으로는 바이블, 이른바 성경(聖經)도 있고, 각종 신앙고백, 공의회 문헌, 교황 및 교황청 문헌 그리고 교회법전, 교부나 교회 저술가들의 저작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천주교의 공식적인 교리³⁾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1992년 10월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인준을 받아서 발행된 〈가톨릭 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 속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알아야 할 모든 교리적 지식과 신앙생활의 지침, 전례 거행의 중심 원리와 세부 내용들이 총망라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신경과 기도문에 대한 상세한 해설들이 들어 있다. 원래 초대 교회 시절부터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교리서가 만들어졌으며, 그리스도 신앙의 입문 서이자, 그리스도 신앙 심화의 교본, 신앙의 규범을 제시한 서적으로 인식되어 왔다.⁴⁾ 1992년에 간행되어 지금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입각하여 신앙과 도덕에 관한 모든 천주교 교리들을 망라하는 교리서로서 편찬된 것이었다.⁵⁾ 그러므로 천주교의 교리적 입장, 의례생활의 기본 원리, 신앙생활의

3) 천주교에서는 교리(敎理, doctrina)라는 말과 교의(敎義, dogma)라는 말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대개 교리는 천주교 신앙의 이론적 구성물 전체를 총칭하지만, 교의라는 말을 쓸 때에는 성경(聖經, Sacra Scriptura)과 성전(聖傳, Traditio)에 기초를 둔 핵심적인 교리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구분해야 하겠지만, 교의라는 말의 용어법은 신학적인 분위기를 많이 담고 있어서 여기서는 대부분 교리라는 말로 통칭하였다.

4) 1960년대까지도 대부분의 교리서들이 암기를 위한 문답식 체계로 서술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천주교에서는 전통적으로 교리문답이라고 불렀다.

규범 등을 파악하려면 이 교리서를 검토하는 것이 첩경이다.⁶⁾

1992년판 〈가톨릭 교회 교리서〉(〈교리서〉라 약칭함)는 그 목적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즉 성경의 가르침, 교회 안에 살아 있는 성전(聖傳)의 가르침, 정통 교도권(magisterium)⁷⁾의 가르침, 교부들과 성인 성녀들이 영적 유산으로 물려준 가르침들을 충실하게 체계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리서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1편 ‘신앙고백’에서는 사도신경과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조목들을 중심으로 천주교 신앙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며, 제2편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에서는 천주교 의례의 기본 원리와 범주, 세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간의 소명과 배양해야 할 덕성, 사회생활에서의 그리스도교적 준칙, 구원과 은총의 원리 등이 제시되고, 이를 다시 십계명의 요목에 따라서 상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편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공적인 전례 생활에서 행하게 되는 의례 실천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중심축으로서 기도에 대한 설명과 가르침을 ‘주님의 기도’에 들어있는 일곱 가지 요목에 따라 해설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교리서〉 제1편과 제3편을 중심으로 천주교의 교리적 특성을 지적하고, 〈교리서〉 제2편과 제4편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천주교의 의례적 특성을 간추릴 것이다. 천주교의 조직적 특성에 관해서는 관련된 교회법전의 조문들을 소개하면서 아울러 천주교의 독특한 조직 체계인 교계제도에 대한 각종 연구서들을 참고하여 설명할 것이다. 특히 의례와 조직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의례나 조직과 관련하여 한국 천주교에서 발생한 특수한 사례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소개하겠다. 왜냐하면 한국 천주교가 로마 교황청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교리를 선포하거나 하는 일은 상상할

5) 1986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명령을 받아서 1992년까지 이 교리서의 편찬 작업을 주도한 사람은 당시 신앙교리성 장관이었던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 즉 현임 교황 베네딕도 16세였다.

6) 현재 한국에는 라틴말 교리서를 번역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개정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제1판), 2008(제2판)이 나와 있다. 그리고 베네딕도 16세 현임 교황이 이 교리서의 전체 내용을 문답 형태로 요약하여 요약편을 간행한 것도 번역 출간되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

7)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를 이행하는 권한을 말하는데, 주로 교황과 주교가 보유한다.

수 없지만, 의례나 조직의 차원에서는 성직자나 평신도들의 실제적인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지역 교회가 준수해야 할 법규들을 반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III. 교리적 특성

천주교에서 정통 교리로 인정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성경 내용에서 핵심적인 사항들을 간추렸다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다.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피하겠지만, ①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믿음, ② 창조주인 천주 성부의 외아들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 재림에 대한 믿음, ③ 성부, 성자와 함께 삼위일체인 성령, 그리고 보편 교회의 역할, 구원과 영생에 대한 믿음 등이 그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교 교단들이 인정하고 있는 핵심 교리이므로, 천주교의 독특한 면모라고 보기는 어렵다.⁸⁾ 다만 몇몇 구절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여러 교단들마다 그 해석을 달리 하는 점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천주교 주장의 기본 토대가 되는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 그것은 바로 계시와 복음 선포의 두 가지 방식의 문제이다.

〈교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주 성부의 결정적인 말씀이므로, 그 이후로 더 이상 다른 계시는 없다고 말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계시가 완결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에서 선발한 사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맡겼다. 사도들은 명령에 따라 복음 선포하는데, 그 방식은 두 가지라고 한다. 먼저 “구두로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그분과 함께한 공동생활에서 받은 것과 성령의 조언에 힘입어 배운 것을 설교와 모범과 제도로써 전달하였다.” 그리고 “문서로는 사도들과 그 직제자들이 성령의 감도로 구원의 소식을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천주교는 사도들의 복음 선포 과정에서 성립된 문서들,

8) 물론 주지하다시피 정교회는 로마 교황청이 니케아 -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제정하면서, 성령이 성부에게서 나왔다는 구절에 ‘또한 성자로부터(filioque)’라는 낱말을 삽입한 점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분열할 당시에 중요한 신학적 논쟁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였다.

즉 성경을 “하느님의 유일한 말씀”으로 인정한다. 즉 “교회는 사도의 신앙에 따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을 그 각 부분과 함께 전체를 기록한 것으로, 또 정경으로 여긴다. 그 이유는 이 책들이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것이고, 하느님께서 저자이시며, 또 그렇게 교회에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된 문서로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천주교의 성경 이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성경 저자들이 정말로 뜻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며, 하느님께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하는데, 성경 저자들의 진술 의도를 알아내려면 그들의 시대와 문화의 상황뿐 아니라, 당시의 일반적인 ‘문학 유형과 이해, 표현, 서술 방식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성경 해석의 권위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해석하는 책무는 오직 교회의 교도권, 곧 교황과 그와 일치하는 주교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이다.

천주교는 이러한 성경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서 사도전승에 따라 어떤 문서들이 성경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지를 판단하여, 구약 성경 46권과 신약 성경 27권을 성경의 ‘정경(正經)’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382년 다마스 1세 교황의 명령을 받아서 성 예로니모(Hieronymus)가 대중 라틴말로 번역한 불가타(Vulgata) 번역본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성경으로 사용하였다. 이 불가타 성경은 1,500년 동안 천주교의 유일한 공인 성경이었는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때에 와서 불가타 번역본에서 미진한 라틴어 구절들을 변경하여 새 대중 라틴말 성경을 간행하였다. 이를 노바 불가타(Nova Vulgata)라고 부른다. 현재 천주교의 라틴어 전례에서 사용되는 공식 성경은 이 노바 불가타이다.

한편 문서로 기록된 계시로서의 성경과 더불어 천주교에서는 “영감을 받은 책들 안에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도적 설교는 세상 종말까지 지속적인 계승으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이를 성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성경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성전(聖傳, Sacred tradition)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성전이란 사도들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배운 바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역 교회에서 생겨난 신학적, 생활 규범적, 전례적 ‘전승’들은 사도전승과는 구별되지만, 교회의 교도권이 지도하는 바에 따라서 ‘성전’

에 비추어 보존되거나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전통적으로 천주교는 복음 선포의 두 가지 경로이자, 똑같이 경건한 애정과 존경으로써 받아들이고 공경해야 하는 대상으로 성경과 성전을 설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도전승에 따라서 그리고 이후에 보편 교회가 교도권적인 차원에서 신자들이 믿고 따라야 한다고 선포하는 교리들이 생겨났다. 현재 성공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들이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천주교의 오류로 규정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 공경과 각종 성인 공경들이 바로 이 성전에 입각하여 교황이나 교황청이 선포한 교리들이다.

성모 마리아와 관련하여 성경에 실려 있지는 않으나, 사도전승 이래의 성전에 따라서 교회가 믿을 교리로 선포한 것들로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⁹⁾ 먼저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에서 완전하게 보호되고, 일생 동안 본죄(本罪, 개개인이 살아 있는 동안 짓게 되는 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¹⁰⁾ 또한 마리아는 사람이 된 하느님의 영원한 아들, 나아가서 바로 하느님과 일체인 그 아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Dei para, Theotokos)’로 본다.¹¹⁾ 아울러 마리아는 예수를 동정으로 잉태하고, 동정으로 낳고, 동정으로 길렀으며, 그 자신이 평생 동정이었다고 믿는다.¹²⁾ 끝으로 마리아는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친 뒤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입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승천하였다고 믿는다. 흔히 몽소승천(蒙召昇天)¹³⁾이라 번역하는 성모 마리아의 승천은 교회의 전승에 따라서 5세말부터 믿어졌으며, 8세기에 분명한 용어로 정착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가 공인하는 교리로 제정된 것은 매우 최근의 일로서, 1950년 비오 12세 교황이 이를 선포하였다.

그 밖에 천주교의 교리에서 개신교 교단들과 차별성을 보이는 부분은

-
- 9) 성모 마리아 공경의 역사와 마리아론의 기본 교의(dogma)에 관해서는 조규만, 『마리아, 은총의 어머니』(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8) 참조.
 - 10)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는 오랫동안 교회를 통하여 전승되어 오던 주장인데, 1854년에 와서 비오 9세 교황이 이것을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다.
 - 11) 삼위일체인 성자의 어머니이므로 곧 천주의 모친이라는 믿음은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 12) 평생 동정(Perpetua Virgo)이라는 표현은 553년에 열렸던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와 신앙고백문에서 명문화되었다.
 - 13)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력승천(Ascensio Domini)과 성모 마리아의 몽소승천(Assumptio Mariae)을 각기 다른 용어로 사용하여 구별하고 있다.

성인 공경 및 이와 연관된 연옥 교리이다. 이 교리의 토대가 되는 것은 바로 사도신경의 후반부에 나오는,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通功)을 믿으며”라는 구절이다.¹⁴⁾ 〈교리서〉는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구절이 앞 구절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런 논리에 따라서 한국의 개신교 교파들은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라고 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천주교의 교리는 개신교 교리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천주교의 〈교리서〉는 분명한 어조로 교회의 세 가지 형태를 제시한다. 즉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지상에서 나그넷길을 걷고 있고, 어떤 이는 이 삶을 마치고 정화를 받으며, 또 어떤 이는 바로 삼위이시며 한 분이신 하느님을 계시는 그대로 분명하게 뵈옵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구절에서 첫째는 현세에 존재하는 지상 교회를 말한다. 그리고 둘째는 지상에서 지은 죄를 정화하기 위해서 연옥(煉獄)에서 단련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말한다.¹⁵⁾ 마지막으로 셋째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하느님을 직접 뵈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성인(聖人)들을 말한다. 따라서 천주교의 교리로 보면 지상 교회와 천상 교회 그리고 연옥 교회 모두가 서로 자신의 공로(功勞)를 나누어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상 교회의 일원인 신자 개개인이 연옥에서 단련을 받고 있는 자를 위하여 하느님에게 기도를 바칠 수 있고, 또 천상 교회의 성인이 지상 교회의 신자들을 위하여 하느님에게 전구(轉求)할 수 있다고 천주교에서는 가르친다.

이러한 교리체계의 연장선 위에서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 및 모든 성인들에 대한 공경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성모 및 성인들을 향한 예절과 하느님을 향한 예절은 별개의 용어로 구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그 의미와 상징 역시 구별하고 있다. 즉 유일신인 하느님에게만 바치는 존경을 아도라치오(adoratio) 또는 라트리야(latria)라고 부르며, 한국 천주교에서는 이를 흠숭(欽崇)이라고 번역한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성 아우구스티노가 정식화한 것이다.

14) 라틴말 원문은 다음과 같다. “Credo in (Spiritum Sanctum,) sanctam Ecclesiam catholicam, sanctorum communionem, ...”

15) 천주교에서 연옥에 대한 신앙 교리는 피렌체 공의회(1439)와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에서 확정되었다.

한편 787년 제2차 니케아 공의회는 성모 마리아 및 성인들에게 바치는 존경을 표현할 때에 베네라치오(veneratio) 또는 둘리아(cultus dulia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 용어는 한국 천주교에서 공경(恭敬)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 교황청에서 인준하고 한국 천주교에서 번역 간행한 1992년판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제1편 ‘신앙고백’을 통해서 천주교의 핵심적인 신조에 해당하는 교리들, 그리고 여타의 그리스도교 교단들과 구별되는 교리들을 살펴보았다.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일반적인 준칙들을 십계명의 요목에 따라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천주교의 교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지적할 점으로 십계명의 체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십계명은 “하느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열 마디 말로 당신 백성에게 계시하신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성경의 탈출기와 신명기에 적혀서 전해진다. 천주교에서는 성 아우구스티노 이래로 예비 신자들과 신자들의 교리 교육을 위하여 십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였다. 그런데 십계명의 분류와 번호 매김은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변하였다. 천주교의 <교리서>는 성 아우구스티노가 정하여 교회의 전통이 된 십계명의 분류를 따르고 있다. 이 분류는 개신교 루터교단에서도 따르고 있으나, 정교회와 여타의 개신교 교단들은 다른 분류를 선택한다.

천주교의 십계명 분류는 정교회와 개신교 교단에서 사용하는 십계명 번호 매김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통합하여 하나의 제1계명으로 제시한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라”는 계명과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는 계명을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정교회와 개신교 교단에서 사용하는 십계명에서 제10계명을 둘로 분할하여,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를 제9계명으로 놓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를 제10계명으로 분류하였다. ‘탐내지 마라’는 구절이 두 번 반복되므로 별개의 계명으로 본 것이다. 천주교에서 이러한 십계명 분류를 채택한 것은 아마도 천주교의 교의체계를 완성한 교부였던 성 아우구스티노에 대한 존경심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IV. 의례적 특성

세계의 여느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천주교 역시 자신의 교리적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몸짓의 문화들을 형성하고 있다. 천주교에서는 종교적 구원을 위한 실천적 행위들을 고도로 체계화하여 이를 전례(典禮, Liturgia)라고 일컫는다. 어떤 면에서는 이 전례를 통해서 천주교의 독특한 면모가 가장 잘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조나단 스미스의 과감한 해석처럼, 유대-그리스도교 전통이 예루살렘 성지의 파괴 이후에 공간적 상징 구조를 대체하는 해결책을 모색할 때에, 유대교에서 미슈나라는 규범 체계를 만들었다면, 천주교에서는 전례주년이라는 시간적 상징체계를 고안해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종교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례의 의미, 1년을 주기로 완성되는 전례주년, 하루를 세분화하여 종교적 성화하는 방식인 시간전례, 그리고 각종 전례의 범주와 구성 요소 및 전례행위에는 속하지 않으나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각종 신심행위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천주교에서는 전례를 “교회의 머리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 성부께 드리는 공적 경배인 동시에 신자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공적 경배”라고 정의한다.¹⁶⁾ 이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①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 직무 수행이면서, ② 예수 그리스도가 실현한 구원업적의 실현이고, ③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인간을 성화하는 방법이며, ④ 말과 동작, 사물 등 감각적인 표지를 통하여 이루어진 성사이고, ⑤ 하느님의 백성인 전체 교회의 공적인 행위로 설명된다. 사실상 전례의 의미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좀 더 복잡하게 진행되지만, 이것을 모두 반드시 이해해야만 천주교의 의례문화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재 천주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전례행위들과 그 밖의 의례문화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것이 더 요긴할 수 있다.

천주교에서 행하는 예식이나 예절, 그리고 기도 등은 크게 볼 때 전례행위와 신심행위로 나눌 수 있다. 전례 거행의 자격을 합법적으로

16) 최윤환, 「전례」, 『한국 가톨릭 대사전 제10권』(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7403쪽.

위임받은 사람이 교황청 인준의 전례서에 따라서 거행하는 것이 전례이며, 이러한 조건들을 채우지 않고 신자들과 성직자들이 단체로 모여서 행하는 예배 행위나 공동 기도들은 신심행위로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전례행위에 속하는 것은 성사(Sacramentum)와 준성사(Sacramentalia), 시간전례, 전례주년 등이다. 그리고 신심행위로 분류되는 것은 십자가의 길, 묵주 기도, 성시간, 말씀의 예배, 그리고 기타 신심 단체의 기도들 등이다.

천주교 전례의 핵심과 골자를 이루는 것은 일곱 성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재현하기 때문에 모든 전례의 중심을 이루는 성체성사를 비롯하여 일곱 성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을 거룩한 표지를 통하여 재현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1992년판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천주교의 기본 의례라 할 수 있는 일곱 성사의 체계를 ①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② 치유의 성사(고해성사, 병자성사), ③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성품성사, 혼인성사)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세례성사는 예비 신자가 물에 잠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묻힘을 상징하고, 그런 다음에 물에서 나옴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지금도 동방 교회의 전례에서는 예비 신자를 실제 물속에 잠기게 했다가 나오게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집전자가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말하면서 예비 신자의 머리에 세 번 물을 붓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새 영세자에게 성령을 준다는 의미에서 축성된 성유를 발라주는 도유 의식도 함께 거행된다. 견진성사 역시 입문 의례에 해당하며,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함으로써 신자들이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성사로 인식된다. 견진성사에서는 집전자가 안수를 하고,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시오”라는 말과 함께 축성된 성유, 즉 크리스마를 바르는 향유 의식을 거행한다. 동방 교회에서는 견진성사가 세례 직후에 이어서 집전되고 바로 성찬례 참여가 이어진다. 하지만 천주교는 견진성사를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를 넘긴 사람에게만 베풀며, 일반적으로 주교만이 거행한다. 한편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의 최종관은 성체성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른바 ‘주님의 만찬’을

본떠서 거행되는 성체성사는 천주교의 대표적인 의례인 미사의 후반부, 성찬례를 구성한다. 천주교 성체성사에서 특징적인 것은 주교나 사제가 성령 청원 기도를 마치고 빵과 포도주를 들고 성찬 제정 축성문을 낭독하는 바로 그 순간에 빵과 포도주가 실제 변화를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 점이다.¹⁷⁾ 이 점은 천주교와 정교회에서 따르고 있는 주장이며, 성공회와 여타의 개신교 교단들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천주교와 정교회가 성체와 성혈의 실제 변화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성체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즉 정교회는 성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상징한다고 보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 부풀린 빵으로 만든다. 이와는 달리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마지막 만찬에서 실제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따라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밀가루 빵, 즉 면병(麪餅)을 사용한다.

천주교 의례에서 핵심을 이루는 일곱 성사 가운데 <교리서>가 치유의 성사로 분류하는 것은 고해성사와 병자성사이다. 회개 또는 참회의 성사, 고백 성사, 용서 및 화해의 성사라고도 불리는 고해성사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천주교 신자가 된 이후에도 남아 있는 인간 본성의 불안정함과 나약함 때문에 짓게 되는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며 또한 사도직에 위임된 권한에 따라서 죄를 용서받는 일련의 절차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변화를 겪으면서도 변하지 않은 고해성사의 기본 구조는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짜여 있다.

첫째는 성령의 감도로 회개하는 사람의 행위, 곧 통회(痛悔)와 고백(告白)과 보속(補贖)이다. 특히 고백의 과정에 대해서 천주교는 고백을 듣는 모든 사제가 고백자에게서 들은 죄에 대해서 절대 비밀을 지킬 의무가

17) 실제변화(transsubstantiatio)라는 용어는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551년 10월 트리엔트 공의회 제13차 회기에 마르틴 루터나 장 칼뱅 등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을 단죄하면서 실제변화 교리를 교의(dogma)로 선포되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실제, 즉 빵과 포도주의 본질적인 존재는 변화하지만, 물리적, 화학적 성질과 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유지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도 성체와 성혈의 실제변화는 천주교 내에서도 끊임없는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주 윤 율리아와 관련된 성모 발현 사건이다.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성체가 실제로 붉은 살덩어리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교도권을 지닌 광주대교구장 윤공희 대주교는 1998년 나주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지하면서 실제변화의 전통적 가르침에 입각하여 이를 공식적으로 단죄하였다.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 매우 준엄한 벌을 받는다고 천명한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 비밀을 ‘성사의 봉인(封印)’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들제는 교회의 중재를 통한 하느님의 행위로서, 교회가 주교와 사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주고, 보속의 방법을 정해 주고,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고해성사의 효과와 관련되어 있는 천주교 전래의 교리와 관습이 있다. 그것은 바로 대사(大赦, indulgentia)이다. 대서란 “이미 그 죄과에 대해서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잠시적인 벌(暫罰)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해주는 것인데,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교회의 행위를 통하여 얻는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대서는 죄 때문에 받게 될 벌을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부분 대사와 전적으로 면제하는 전대사로 나뉜다. 그리고 현행 교회법전 제994조에 따르면 천주교 신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대사를 얻을 수 있고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대사에 관한 교리와 관습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으며, 마르틴 루터 등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의 서양사 관련 역사서나 기타 서적들에서 면죄부(免罪符)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천주교는 대사를 공식 용어로 사용한다.

병자성사(病者聖事, unctio infirmorum)는 과거에 종부성사(終傅聖事, extrema unctio)라고 불렀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전례개혁 이후에 와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마지막’이라는 뉘앙스가 오히려 성사를 회피하는 경향을 낳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굳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질병이나 노령만으로도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병자의 영적인 건강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성사는 회복된 후에도 그리고 위험이 증가할 때에 반복해서 받을 수도 있다. 주교나 신부 등 사제만이 베풀 수 있는 병자성사는 병자의 이마와 양손에 축성된 기름을 바르는 예식이 핵심을 이루며, 상황이 허락하면 고해성사를 먼저 베풀고 병자성사 뒤에 성체성사를 줄 수도 있다. 죽음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이 성체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기 위한 노자라는 의미에서 노자성체(路資聖體, Viaticum)라고도 부른다.

일곱 성사의 마지막 범주는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로서, 여기에 속한

것은 성품성사와 혼인성사이다. 이 성사들은 개인적인 구원에도 이바지 하지만, 타인들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타인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설정된다. 즉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하느님 백성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성사라는 것이다. 성품성사에는 주교 품과 사제품, 부제품의 세 가지 등급이 있다. 그러한 품계를 받는다는 의미를 담아서 서품 예식이라고도 불린다. 이를 통하여 천주교 내에서 맡게 되는 고유한 직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주교의 안수와 축성 기도가 이 예식의 핵심을 이룬다. 성품성사에서 주어지는 품계들은 천주교의 조직 체제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다.

천주교에서 혼인성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상징하며,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은총을 부부에게 준다”고 믿는다. 따라서 혼인성사를 통하여 결합된 부부 사이의 유대관계는 원칙적으로 어느 한쪽이 사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해소될 수 없다고 말한다. 천주교에서는 개인의 행복, 일반 사회와 그리스도교 사회의 안녕이 부부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의 행복한 상태와 직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사라는 의례적 준칙에 합당하게 혼인이 거행될 수 있도록 대단히 세밀하면서도 때로는 지나치게 번잡하다 싶은 정도로 복잡한 규정들을 교회법전 속에 마련해놓고 있다. 즉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혼인성사가 거행될 우려가 있는 장애¹⁸⁾ 요소들, 그리고 이미 거행된 혼인성사를 무효화하는 장애 요소들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장애를 해소하는 교회법상의 관면(寬免)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체성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교회 역사 속에서 볼 때 12세기 무렵에 가서 전례행위로서 규정된 성사가 일곱 가지로 결정되었다. 그러면서 성사 외에 교회가 정한 거룩한 표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를 준성사(Sacramentalia)라고 부르게 되었다. 준성사는 이름 그대로 성사는 아니지만, 그 의미, 내용, 형식, 효과의 면에서 성사를 모방한 거룩한 표지들이다. 준성사 중에는 성사를 효과적으로 받도록 준비시키는 예비자 예식과 같은 것도 있으며, 또 어떤

18) 천주교에서 교회법적인 저축 사항을 가리키는 옛 말은 조당(阻擋)이었다. 혼인조당 등과 같은 표현으로 사용되던 이 말은 요즘도 “조당에 걸려서 성사를 못 보고 있다” 등과 같은 식으로 가끔 사용된다.

경우에는 성사를 생활의 여러 분야에 확장시킨 것도 있다. 이를테면 곡식이나 음식축복과 식사기도 등은 성체성사를 모방한 것이며, 참회예식과 병자예식 및 장례식 등은 참회성사와 병자성사 등을 모방한 것이다. 동정녀 축성과 수도서원 및 서원갱신 등은 신품성사와 혼인성사와 연관이 있다. 이들 준성사를 유형별로 보자면, 축성과 봉헌과 축복, 구마, 행렬, 기타의 예배행위 등이 있다. 준성사의 집전은 흔히 사제들에게 유보되어 있지만, 예비 신자들에 베푸는 강복과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평신도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천주교 전례에서 성사와 더불어 중요한 의례 실천은 시간전례와 전례주년이다. 시간전례(時間典禮, Liturgia horarum)란 과거에 성무일도(聖務日禱, Officium divinum)라 불렀는데,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하루의 중요한 시간에 기도함으로써 하느님을 찬미하고 인류 구원에 이바지하며, 이를 통해 하루 전체를 성화시키는 교회의 공적기도를 말한다. 특히 수도원 운동이 출현하면서 하루의 밤과 낮을 세분하여 정해진 시간에 공동체 기도를 바치는 관습이 정착되었다. 그래서 밤중 기도, 찬미경, 일시경,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만과, 끝 기도 등 세분화된 기도 시간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개혁 과정에서 많은 기도들이 단순화되었다. 그리하여 아침 기도(찬미경)와 저녁 기도(만과)가 시간전례의 축이 되었고, 네 개의 소시간경(일시경, 삼시경, 육시경, 구시경) 대신에 오전 중간, 한낮, 오후 중간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낮 기도로 간소화되었다. 현재 시간전례는 성직자와 수도자에게만 의무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평신도에게는 권장 사항이다.

한편 전례주년(典禮周年, annus liturgicus)이란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교회가 1년을 주기로 하여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정점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업적과 신비 전체 및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들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주년이다. 이 주년은 전례달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전례달력은 태양력으로 1년에 해당하며, 대림 시기의 첫째 주일에서 시작하여 연중 시기 제34주간 토요일로 끝나는 52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들을 기념하는 주기, 성모 마리아와 여러 성인들을 상기하는 성인 주기가 함께 겹쳐져서 전체 전례주년을 이룬다. 즉 시간적인 주기 상으로는 대림, 성탄, 시순, 부활, 연중의 다섯 구획이 차례대로 반복되며,

성인 주기는 성인 축일로 선포된 날과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여러 축일들을 전례달력에 배치하여 기념한다. 이러한 각종 축일들은 대축일, 축일, 기념일 등 여러 가지 등급이 주어진다. 이런 이유로 천주교의 전례주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원 업적에 관련된 전례적 시기, 각종 성모 마리아 및 성인 축일들의 등급 등에 따라서 매우 복잡한 전례상의 규범들을 가지고 있다.

천주교의 의례적 측면 가운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전례행위에는 속하지 않는 각종 신심행위들이다. 이는 교회의 공식예배나 기도인 전례행위가 아니면서, 부분적으로나마 전례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일부 거룩한 행위를 말한다. 많은 신심행위는 전례행위와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일부학자들은 이를 넓은 의미의 전례행위로 간주한다. 그러나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에서는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신심행위 중에는 교회 전체적인 것도 있고, 지역교회적인 것도 있지만, 그 어떤 것이든 교회법과 규정과 조화를 이루면 대단히 장려할 뿐 아니라 사목적인 가치도 인정한다. 그 규정이란 전례시기 및 전례행위와 조화를 이루며, 어느 정도 전례에서 나오며 전례로 인도함을 말한다. 대표적인 신심행위는 말씀의 전례, 성체현시와 강복예시, 십자가의 길 기도, 여러 형태의 성시간, 로사리오(묵주) 기도 등이다. 준성사가 성사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신심행위는 전례행위와 어느 정도 연관을 맺고 있다. 이를테면 소 성무일도나 로사리오 기도는 시간전례를 모방한 것이다.

V. 교단조직의 특성

천주교에서는 교회 조직을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을 ‘하느님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통괄하고 있다. 이것은 특별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제시된 천주교 교회론의 핵심 원리인데, 성직자와 평신도 전체를 모두 아우르는 전체 신자를 지칭하는 하느님 백성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말씀의 선포와 성사 거행 그리고 신자 집단에 대한 통치를 통하여 하느님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직무들도 별도로 구성된다. 이를 교계제도(教階制度, Hierarchia)라 부른다. 즉 전체로서의 보편 교회 자체는 세례성사를 받은 평등한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되지만, 그 직무에 따라서 품계가 주어지고 이것이 지상 교회를 이끌어나가는

교계제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계제도는 천주교 성직자들을 위계적으로 조직하는 원리로서, 천주교의 조직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개념이다.

천주교 교계제도는 두 가지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개별 성직자들이 성사 거행 등 전례 거행과 관련하여 여러 등급의 직무들을 차별적으로 부여받는 품계의 원리로 교계제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달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기 위하여 사목적인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적 권한과 통치권의 측면에서 교계제도를 파악할 수도 있다. 먼저 품계의 원리로 따진다면 천주교의 조직은 성품성사를 받은 사람, 즉 주교, 사제, 부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통치와 관할의 원리로 본다면 천주교의 고유한 조직적 특성은 교황과 교황청, 주교와 교구, 사제와 본당 사목구, 그리고 특수 조직으로서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이라 지칭되는 수도회 조직 등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품계(品階, ordo)의 원리로 볼 때 천주교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직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 품계로 나눈다. 그것은 주교품(主教品, ordo episcoporum)과 사제품(司祭品, ordo presbyterorum)이다. 그리고 부제품(副祭品, ordo diaconorum)은 그들을 돕고 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현재 천주교에서 사제라는 용어는 주교와 신부만을 가리키며, 부제는 사제 곧 성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자,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의 사목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제는 주교들의 봉사직 임무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주교품의 협력자이다. 따라서 주교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지상 교회의 대표자로서 개별 교회의 모든 운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통치자이며, 또한 사제직 후보자들에게 사제품을 줄 수 있는 권한과 세례성사를 받은 천주교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베풀 수 있는 성사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흔히 교황(教皇, Papa)을 주교의 상급자로 인식하나, 역사적으로 보면 교황 역시 로마 교회의 주교로서 여러 개별 교회의 대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사도들 가운데 첫째였던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주교들 가운데 수위권(首位權, Primatus Romani Pontifici)을 지닌 주교로 간주된 것은 451년 칼체돈 공의회 이후에 와서 확립된 일이었다.

그렇더라도 각 지역 주교들의 고유한 사목 권한은 교황의 수위권에 의해서 침해당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주교는 자신의 사목권을 교황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주교 서품을 통하여 하느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교황의 대리자가 아니라 고유하고 직접적인 사목자이며, 세계 교회에 대해서는 교황과 함께 주교단을 구성하여 최고 사목권의 주체가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천주교의 품계 원리에서 주교품 위의 상급 품계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추기경(樞機卿, Cardinalis) 역시 품계상으로 주교의 상급자에 해당하는 직책이 아니다. 본래 추기경은 로마 교회의 사제들 가운데 교황의 전례 거행과 사목 통치를 보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소속 본당의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보편 교회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중추자(中樞者, cardinalis)'로 불리게 된 데서 연유한다. 그러다가 교황 수위권이 확정되면서 추기경 제도가 확대되어 로마 시내 본당의 사제들, 인근 교구의 주교들, 그리고 교황청 소속 부제들도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다. 1179년에 가서는 알렉산데르 3세 교황에 의해서 교황을 선출하는 권한이 추기경단에 부여되었고, 로마 교구 바깥의 주교들도 추기경으로 임명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추기경은 여러 가지 직무의 수행을 통해서 교황을 보필하는 역할을 맡고, 또 교황 사후에 신임 교황을 선출하는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특정 본당이나 교구에 통치권을 행사하지는 못하며, 교황에 의해서 위임된 일만을 관할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교회의 통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보자면 추기경은 명예직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 천주교에서는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대주교만이 추기경으로 서임되어 있다.

품계상으로는 부제품이 존재하지만 부제는 성직자가 아니며, 사제로서의 직위가 아니라 봉사 직무를 위하여 안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부제품은 주교만이 할 수 있는데, 이는 부제로서의 역할과 임무가 특별히 주교에게 속해 있음을 말해준다. 예전에는 부제품이 사제품을 받기 위한 예비 단계로만 간주되었다. 그러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와서 단순히 사제품을 준비하는 일시적인 부제품 외에, 교계제도 상으로 고유하고 영구적인 품계로서 종신부제직도 인정하고 있다. 공의회 결정에 따라서 현재는 기혼 남성들도 종신 부제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교회 활동에서 전례, 사목, 사회사업, 자선사업 등에서 주교나 사제들을 보좌하

면서 부제로서의 고유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 천주교에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교구에서 종신부제품을 받은 한국인 신자들이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하지만 한국 천주교에서는 아직 종신부제를 서품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천주교 품계 원리를 살펴보았는데, 사실 천주교의 조직적 특성은 통치권 내지 관할권 차원에서 교계제도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면 더 잘 드러난다. 세계 교회 전체로 보면 대단히 복잡한 조직임에는 분명하다.¹⁹⁾ 게다가 그 역사적 변천까지 아우르자면 매우 장황한 서술이 될 위험이 많다.²⁰⁾ 하지만 여기서는 현재 한국 천주교의 모습을 조직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 교황청, 교구, 본당, 수도회 등과 관련하여 긴요한 부분만을 간추려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교황이 보편 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고, 교황의 이름과 권위로 교회의 선익과 봉사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교황청”은 국무원 즉 교황 비서실, 교회의 외무 평의회, 심의회들, 법원들 및 그 밖의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관해서는 1988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서 제정된 교황청 특별법의 세부 규정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²¹⁾ 그 중에서 한국 천주교와 관련하여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으로는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사도좌 성묘(省墓) 방문 (visitationes ad limina, 흔히 이를 줄여서 ‘앗 리미나’라고도 부름)이 있다. 이것은 세계 교회의 주교들이 5년에 한 번 정도 정해진 때에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묘소가 있는 교황청을 방문하여 참배하고 그 기회에 교황에게 교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관례를 일컫는다. 한국 천주교는 이 기간 주교단을 파견하여 묘소들을 참배하고, 교황을 알현한 다음에, 한국 천주교와 관련하여 현안이 있을 경우에 해당 교황청 부서들을 예방하여 그 책임자들과 논의를 진행한다. 교구 상태에 관한 보고서는 정기 방문이 정해진 시기보다 6개월 이전에 미리 교황청에

19)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계제도의 법적 규정들은 현행 교회법전 제330조부터 제572조까지의 조항에 실려 있다. 그리고 관상 수도회와 활동 수도회를 지칭하는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에 관해서는 제573조부터 746조까지에 그 법적 규정이 나와 있다.

20) 교계제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정진석, 『교계제도사』(가톨릭출판사, 2007).

21) 정진석 지음, 한영만 개정, 『교회법전 주해』(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1769-1813쪽.

제출하고 있다.

또한 로마 교황청이 한국 천주교와 긴밀한 연계를 맺는 또 다른 조직적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황대사의 존재이다. 현재 서울시 종로구 궁정동 2번지에 소재한 교황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로마 교황청 사이의 외교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교황대사는 주재국에서 교황을 외교적으로 대표하는 직무 외에도 개별 교회와 교황청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즉 개별 교회가 처한 상태에 관한 정보를 교황청에 보내는 일과 주교 임명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명단을 교황청에 전달하는 일, 그리고 주교로 승격될 인물들에 대한 조사 절차를 지도하는 일 등을 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 천주교의 주교단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한국 천주교의 교구에 대해서 살펴보자. 교황과 주교단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천주교의 교계제도에서 개별 교회라고 말하면 통상 교구(教區, dioecesis)를 지칭한다. 그리고 교구를 이루기 이전 단계에 속하는 대목구와 지목구, 직할 서리구 (administratio apostolica) 및 특수한 자치조직인 성직 자치구(praelatura)와 자치 수도원구(abbatia)도 교구에 준하는 조직으로 인정받는다. 한국 천주교는 역사적으로 보면 1831년부터 대목구 체제로 시작되어 1911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개의 대목구와 지목구 등이 분할 설치되었으며, 1962년에 와서 정식 교구들로 인정받았다. 현재 한국 천주교의 교구 숫자는 모두 19개이다. 서울대교구장, 춘천교구장 그리고 왜관 성 베네딕도 수도원 총아빠스가 각각 서리 역할을 맡고 있는 북한 지역의 3개 교구를 제외하면 16명의 교구장 주교들이 각각 자신의 교구를 관할하고 있다. 이들 교구장 주교는 모두 독립된 교구장으로서 독자적인 관할권을 행사하지만, 자신의 관할권을 벗어나서는 아무런 권한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원론적으로 볼 때 한국의 천주교는 16명의 통치자를 가진 16개의 독립된 교구들로 이루어진 셈이다.

교구장 주교는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에서 일체의 고유한 직접적 직권, 즉 입법권과 집행권 및 사법권을 행사하여 교구 소속의 신자들을 통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해당 교구에 소속된 성직 후보자들에게 사제품을 주는 것 역시 교구장 주교에게 속한 권한이다. 우리가 흔히 성당이라고 부르는 천주교 조직의 최소 단위는 그 정식 명칭이 본당

또는 본당 사목구(本堂 司牧區, parochia)이다. 본당 사목구의 최고 책임자는 주임 사제로서, 천주교 신자들의 공동체를 관할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돌보는 역할을 맡는다. 교구에 대해서 교구장 주교가 갖고 있는 권한과는 달리 본당 사목구에서 주임 사제의 역할과 위상은 교구장 주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당 사목구를 신설하거나 폐쇄하는 일은 전적으로 교구장 주교가 결정하는 사항이다. 이처럼 교구와 교구장 주교는 천주교 조직 원리에서 볼 때 자기 완결성을 지닌 독립된 개별 교회이다.²²⁾

하지만 세속 국가의 행정적 구획 때문에 한국 천주교의 전체 교구 또는 몇 개의 교구들이 공동의 현안을 해결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교구는 민족적, 지역적, 역사적 관점에서 별개로 존재할 수 없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한국 천주교의 주교들은 사목 임무를 공동으로 조정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주교회의를 구성하였다. 이미 19세기부터 서구 여러 나라들에서는 역사적, 사회적 및 문화적인 이유들로 인하여 해당 국가에 속한 여러 교구들의 주교들이 모여서 주교회의를 구성하였던 역사적 전례를 참고한 것이었다.²³⁾ 해방 직후였던 1948년 당시 주한 교황 사절이었던 제임스 패트릭 번(James Patrick Byrne, 1888-1950) 주교가 전국적인 차원의 교회 협의체 구성을 계획하여, 1949년에 교황 사절의 산하 기관으로서 한국 천주교 중앙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는 1952년에 당시 문교부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사단 법인에 등록되었고, 1959년에 가서 교황 사절 산하 기관이 아니라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직속 기구로 재편되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매년 봄과 가을에 춘계 및 추계 정기총회를 열어 한국 천주교 전체와 관련된 현안들을 처리하고 주요한 결정 사항들을 반포하고 있다. 그러나 주교회의는 어디까지나 공동된 현안들을 협의하는 기구이지, 개별 교구들의 상급 기관은 아니다. 그러니 엄밀하게

22) 교구장 주교에게 임기는 따로 없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현행 교회법전의 제401조에서는 75세를 만료하면 교황에게 직무 사퇴의 의사를 표명하도록 권고되어 있다. 그러면 교황이 모든 상황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는 것이다. '권고'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명확한 임기가 있는 것은 아니되, 다만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사퇴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는 정도로 규정되어 있다.

23) 물론 일제 강점기였던 1930년대부터 서울, 대구, 원산, 평양, 연길 등 다섯 선교지의 주교들이 주교회의를 개최한 바 있었다. 그 역사적 과정을 따지자면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말하면 주교회의에서 반포하는 사항들이 개별 교구들에 강제 사항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교황의 위임을 받아서 주교회의가 입법권을 가지고 제정한 일반 교령, 즉 지역 교회법은 개별 주교들에게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게다가 주교회의의 임원과 회원들이 모두 현재 한국 천주교를 움직이고 있는 주교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주교회의의 결정 사항들은 대부분 개별 교구들에서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천주교의 조직 체계 가운데에서 일반인들의 인식에 가장 혼란스러운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수도회 조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천주교의 교회 조직은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특수한 소명을 받아서 다소 특별한 생활 형태를 영위하는 제3의 신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수도자이다. 수도자는 교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 수도회의 고유한 회헌이 규정하고 있는 수도 생활의 규칙대로 살 것을 공적으로 선서하고 그 회 소속의 수도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신자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수도자 신분은 본성상 성직자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다. 그러나 수도자로서 생활하면서 동시에 사제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사제품을 받는 경우나, 본디 사제였다가 수도회에 입회하여 수도 서약을 함으로써 수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교구 사제(sacerdos saecularis)와 구별하여 수도 사제(sacerdos religiosus)라고 부른다.²⁴⁾ 가령 예를 들자면 예수회에 입회하여 수도자가 된 뒤에 다시 신학교 교육을 받고 사제가 되어서 활동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또한 평신도 가운데에서 가정과 직장 등 세속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도회에서 제시하는 규범대로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형태의 평신도 조직 가운데 대표적인 경우는 ‘재속 프란치스코회’ 또는 ‘프란치스코 수도회 제3회’이다.²⁵⁾

이처럼 교회법상으로 특수한 신분인 수도자들로 조직된 수도회 역시 특정 교구에 귀속된 조직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계제도의 일부를 구성하

24) 교구사제와 수도사제의 라틴어 명칭에서 ‘saecularis’와 ‘religiosus’를 통상적인 용어법으로 이해하여 세속적, 종교적이라 번역하면 곤란하다. 이런 점에서는 재속사제, 수도사제라는 옛날식 번역어가 본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전달해준다.

25) 남자 수도회가 첫 번째 회, 여자 수도회가 두 번째 회, 그리고 그 수도 공동체의 영성을 닦으려는 평신도들로 구성된 회를 세 번째 회라는 의미에서 제3회라고 부른다. 수도회와 더불어 봉헌 생활회로 분류되는 재속회(在俗會, Institutum saeculare)와는 달리, 제3회는 봉헌 생활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자 단체이다.

는 것도 아니다. 교구장 관할권에서 벗어나 있는 수도회, 소위 ‘면속(exempta) 수도회’는 독립적으로 교황에게만,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교황청 수도회성(修道會省)에 종속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예수회이며, 이런 수도회들은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교구장과 상명하복의 수직적 위계 관계를 갖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활동한다. 다만 교구장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되, 아직 교황청으로부터 승인 교령을 받지 않은 ‘비면속 수도회’인 경우에는 교구장의 특별한 배려 아래에 있게 되며, 교구장은 수도회의 자치를 보존하고 보호할 소임을 지낸다. 또한 교구장이 그 수도회에 특별한 사업(교육, 자선, 복지, 기타 사도직 활동)을 맡겼다면 이 사업에 관해서는 수도회도 교구장 주교의 권위와 지도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수도회와 개별 교구의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한국 천주교에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사안들과 관련하여 그 원인과 경과, 결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2008년에 수원교구와 미리내 성지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3개 수도회(미리내 천주성삼 성직 수도회, 미리내 성모성심 수녀회, 미리내 성 요셉 애덕 수녀회)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들 수도회의 설립자는 정행만 신부인데, 1950년대부터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을 하다가 1991년에 교황청으로부터 교구 소속의 수도단체로 그 회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들 수도회와 소속 인물들은 1947년 경북 상주에서 시작된 이른바 ‘황테레사의 사적계시’ 사건에 직접 연관되어 있었으며, 1957년 대구대교구의 서정길 주교로부터 그 신앙행위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조치를 당하자 수원교구로 옮겨와서 미리내 성지에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미리내에 소재한 수도회 단체들의 신앙생활은 알게 모르게 천주교 내에서 계속 문제가 되었는데, 결국 2008년 10월 수원교구의 최덕기 주교가 교령을 내려, 해당 수도회가 황테레사의 사적 계시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지금까지 사용해온 기도문과 형상물들을 모두 파괴할 것을 명령하였다. 하지만 수도회측은 이에 불복하여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급기야 같은 해인 2008년 12월에 인류복음화성에서는 수원교구장 최덕기 주교의 교령에 대해서 그 집행을 유보할 것과 위원회를 조직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현재 이 사건은 아직 분명한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한국 천주교 전체로 볼 때 신앙상의 이유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많은 논란들이 대부분 교구장 주교의 권한 밖에 존재하는 수도회들의 독특한 신앙생활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²⁶⁾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개별 단체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매년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한국 천주교 주소록』의 최근판(2008-2009)을 보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남자 수도회는 49개, 여자 수도회는 103개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식적인 집계보다는 더 많은 수도회들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된다.

VI. 남은 이야기

2009년 11월 15일 저녁 6시, 우연한 기회에 명동대성당의 미사에 참석할 일이 있었다. 영성체 의식이 끝나고 이제 미사가 끝나나 했더니, “000님과 000님의 살풀이 봉헌이 있을 것”이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살풀이를 봉헌한다고? 도대체 무언가 싶어서 지켜보니, 소복처럼 흰색 한복을 입고 하얀 명주 천을 손에 든 여성 두 분이 나와서 살풀이춤을 추는 것이었다. 천주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000를 봉헌한다”는 표현처럼 요령부득인 말도 드물다. 특히 그 날처럼 액(厄)을 풀어낸다는 뜻에서 살(煞)을 푸는 춤을 봉헌한다고 말하면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바치는지 모호하기 이를 데 없다.

저걸 왜 하지? 의아해 하는데, 춤이 끝나고 나서 그 날의 미사 집전을 맡았던 신부가 앞으로 나와서 11월이 위령성월이어서 준비한 것인가 보다는 요지의 말을 하였다. 위령과 살풀이라! 이 날의 난데없는 살풀이 공연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어쩌면 그 행사를 준비하는 담당자들은 세칭 ‘용산참사’를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위령의 계절에 토착화된 천주교 전례를 실험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그 어느 쪽이건간에 살풀이에 담긴 전통적인 신앙 관념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한다는 천주교의 관념은 매끄럽게 서로 달라붙지 않는다. 오히려 천주교가

26) 실제로 1985년부터 시작된 나주 율율리아 사건 역시 1998년에 내려진 광주대교구장의 금지 교령에 불복하면서 마리아의 구원방주라는 독자적인 단체를 구성하여 최근까지도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 상주 황테레사 사건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문화와의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오늘날 천주교가 한국 사회에서 총인구 대비 10%에 육박하는 교세를 자랑하고 있으며, 일반 한국인들에게 그다지 낯설지 않은 모습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타의 그리스도교 계통의 교단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글은 많지 않다. 그래서 교리, 의례, 조직의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 천주교의 독특한 면모들을 핵심만 추려서 설명하였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원래 의도했던 서술 가운데에서 천주교와 한국문화의 만남과 갈등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개 양상을 전망하려 했던 부분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제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사회와 천주교가 초창기부터 보였던 대립 관계와 그로부터 빚어졌던 박해의 역사에 대해서는 길게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들어와서 한국 천주교의 인식 태도는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와서 토착화에 대한 한국 천주교의 관심과 노력은 상당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왔다. 가령 예를 들자면 1987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처 소속의 한 부서로 설립된 한국사목연구소가 '토착화 연구 위원회'를 설치하여 2002년까지 총 58회에 걸쳐서 토착화 연구 발표회를 열었으며, 그 성과를 전례 및 영성, 교리교육, 신관, 인간관, 공동체관의 다섯 주제로 나누어 '토착화연구자료집'이라는 형태로 발간한 바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심과 연구를 바탕으로 미사 통상문을 새로 번역한다거나 천주교 교회 용어들을 재정리하여 정착시킨다거나, 새로운 상징 예식과 제사 예절 시안을 만들어 보급하는 등의 노력들이 한국 천주교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관심의 대상이 무엇인지도 약간은 혼란스러운 마당에 접근의 방법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은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즉 천주교가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린다고 말하면서, 천주교는 능동적인 작용을 행하는 주체로 설정하고, 한국 사회는 그 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동적인 객체로 보는 패러다임 역시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영위해온 문화적 관행 가운데 어떤 점들을 천주교가 창조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뚜렷한 입장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위에서 잠깐 소개한 일화처럼 살풀이와 위령을 기계적으로 조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나 싶다.

이제 글의 첫 머리에서 던진 추측성 진단으로 돌아가자. 과연 21세기에 한국 천주교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일단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과 관련하여 불붙이듯이 일었던 추모 열기가 교회 내부로는 신앙 쇄신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대규모 개종 사태를 낳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그 보다는 2000년 이후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는 한국 천주교의 위기, 말하자면 중산층 중심의 종교로 바뀌어감에 따라 물량적 성장을 중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으며, 새로 입교한 신자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부실해지면서 성사 참례자들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점 등이 증폭되리라 예상된다. 게다가 대사회적 활동이 위축되고, 문화적 토착화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한 위기의식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회 당국자들은 전통적 관례를 고수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개혁을 원하는 측은 새로운 상황에의 적응을 주장할 것이다. 그 어느 쪽이든 과연 한국 천주교의 종교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겠는가.

참 고 문 헌

-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개정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제2판).
-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
- 정진석 지음, 한영만 개정, 『교회법전 주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 정진석, 『교계제도사』. 가톨릭출판사, 2007.
- 조규만, 『마리아, 은총의 어머니』.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8.
- 최윤환, 「전례」, 『한국 가톨릭 대사전 제10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7403-7408쪽.

국 문 요 약

오늘날 한국의 천주교는 총인구 대비 10%에 육박하는 교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 한국인들에게도 그다지 낯설지 않은 모습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타의 그리스도교 교단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러한 특성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글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이 글은 특정 종교 교단으로서 천주교가 지닌 다양한 면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1세기 한국 종교계가 보이게 될 변화의 진폭 속에서 천주교가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인지를 기늩하러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종교연구자들이 특정 종교현상을 설명할 때 가장 널리 사용하는 도식은 교리, 의례, 조직의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이러한 도식에 맞추어 한국 천주교의 종교적 특성을 교리체계, 의례실천, 교단조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로마 교황청이 인준한 공식적인 교리서를 중심으로 천주교의 교리 내용과 의례 문화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그것이 지닌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다른 그리스도교 교단의 경우와 비교하거나, 한국 천주교의 특수 상황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또한 천주교의 교단조직이 매우 복잡한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른바 교회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 원리를 토대로 하여 한국 천주교의 조직체계를 개괄적으로 다루었다.

투고일 2010. 1. 15.

수정일 2010. 2. 22.

게재 확정일 2010. 3. 1.

주제어(keyword) 천주교(catholicism), 교리서(catechism), 교의(dogma), 전례(liturgy), 교계제도(hierarchy)